



## 중 남 미

# 경기 회복속도 둔화 전망

중남미 경제는 금년 들어서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4분기 주요 경제지표들은 지난 4/4분기보다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중남미 경제가 지난해 4/4분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금년 1/4분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연초의 이러한 경기인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남미 경제가 예상 밖의 부진을 보임에 따라 중남미 각국의 통화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년 들어 미국 경제의 회복시기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약세<sup>1)</sup>를 지속하고 있는 미 달러화가 중남미 통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이는 미국과 중남미 경제의 동조현상으로 이해되며, 중남미 국가들의 경기 회복세 둔화와 정국불안 등 불확실성 증가로 중남미로의 국제투자자금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표 1〉 중남미 주요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2000년	2001년				2002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sup>e</sup>
멕시코	5.1	2.0	0.1	-1.5	-1.6	-2.0
아르헨티나	0.0	-2.0	-0.2	-4.9	-10.7	-18.1
브라질	4.3	2.6	2.1	1.3	-0.7	-0.7
베네수엘라	6.1	3.8	2.6	2.8	1.6	-4.2

자료: EIU.

1) 달러·유로 환율은 연초 0.86에서 5월말에는 0.93을 기록하고 있으며, 엔·달러 환율은 연초 134.34에서 5월말에는 124.24로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 경제의 회복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의 국제가격 하락 등의 대외요인과 중남미 제국의 국내 정국불안 등의 대내요인이 함께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 중남미의 경기 회복세 둔화의 주요 원인은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대내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멕시코, 지난해 말부터 경기침체 본격화

멕시코 경제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수출과 국내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3/4분기 이후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었다. 금년 들어서도 멕시코 경제는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를 기록하여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4분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경제회복 신호가 나타나

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는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경제성장률도 연초 기대에 못 미치는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멕시코 페소貨의 對미달러 환율은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 상승<sup>2)</sup>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2000~01년 중장세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금년에는 약세로 돌아서 6월 현재 對미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5% 상승한 9.65를 기록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극심한 경기침체 지속

1999년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경제는 지난해 12월 경제난에 항의하는 소요사태 발생으로 델라루아 대통령이 사임하고 외환부족으로 외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국가파산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금년 들어서도 두알데 신임 대통령은 태환정책을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경제정책 추진에 혼선을 빚고 있다.

〈 표 2 〉 중남미 주요 통화의 對미달러 환율 동향

	통 화	1998	1999	2000	2001	2002	
						6월 15일	변화율(%)
멕시코	Peso	9.87	9.50	9.65	9.16	9.65	5.3
아르헨티나	Peso	1.0	1.0	1.0	1.0	3.53	353.0
브라질	Real	1.208	1.789	1.955	2.320	2.651	14.3
베네수엘라	Bolivar	564.5	648.3	699.8	763.0	1,216.0	65.1

자료: Bloomberg.

2) Moody's는 2000년 3월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Ba1에서 투자적격등급인 Baa3로 상향조정하였으며, S&P도 2002년 2월 멕시코의 신용등급을 BB+에서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상향조정함.

따라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금년 1/4분기에도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18.1%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6월 현재 아르헨티나 페소貨의 對미달러 환율은 3.53으로 연초 대비 353% 상승하였다. 2/4분기에도 대량 예금인출 사태로 은행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자 금융거래 중단조치를 단행하는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IMF의 구제금융 도입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경기침체는 하반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전체로는 -10.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브라질, 2/4분기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 기대

지난해 브라질은 세계경제의 침체, 전력난,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인해 3/4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4/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금년 들어 세계경제 회복, 전력난 해소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개선으로 브라질 경제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초의 전망과는 달리 -0.7%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헤알貨도 다시 약세로 돌아서, 6월 15일 현재 對미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14% 상승한 2.65를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가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좌파인 노동당 룰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

게 나타남에 따라 신규투자가 정체되고 있으며, 물가불안을 우려하는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2/4분기 이후에는 성장세를 회복하고 금년 전체로는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베네수엘라, 정국불안으로 경기침체 지속

베네수엘라 경제는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금년 1/4분기에는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4.2%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금년 2월 경기침체와 정국불안에 따른 외환유출 증대 등으로 볼리바르貨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커지자, 환율방어를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다.

2/4분기에도 베네수엘라 경제는 차베스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축출되는 등 극심한 정국불안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볼리바르貨의 對미달러 환율은 6월 현재 1,216으로 연초보다 59% 급등하였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이후 베네수엘라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국불안과 환율불안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년 전체로는 -1.4%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金永錫】